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
전·후 영어 교과서 내용체계
비교 분석

- 중1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201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일 목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
전·후 영어교과서 내용체계
비교 분석

- 중1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일 목

김일묵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8월 25일



주심 문 학 박사 전 춘 배 (인)

위원 영문학 박사 윤 희 수 (인)

위원 영어학 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iii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제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비교	3
2.2. 영어 교재론	5
III. 내용체계 분석 방법	9
3.1. 분석 대상	9
3.2. 분석 모형 설정	10
IV. 내용체계 분석	12
4.1. 구성체계	12
4.2. 소재	22
4.3. 신어휘수	36
V. 결론	46
참고문헌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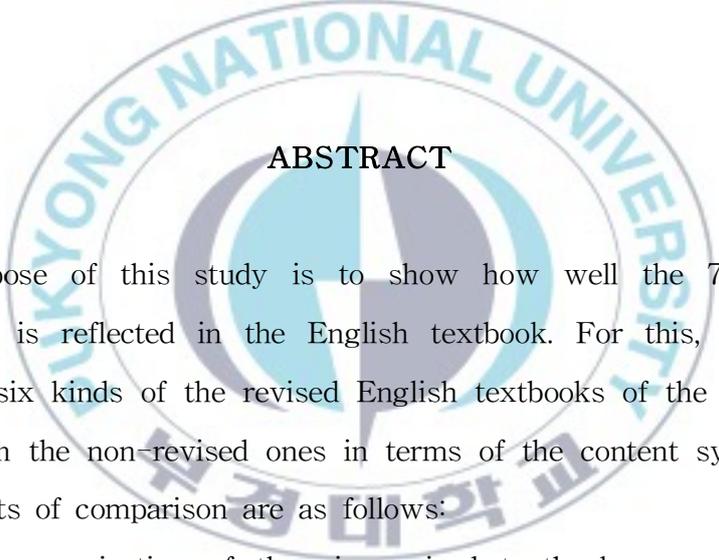
표 목 차

<표1> 제 7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4
<표2> 교과서 분석 모형	10
<표3> 교학사의 구성체계 비교	12
<표4> 금성의 구성체계 비교	14
<표5> 두산(김)의 구성체계 비교	15
<표6> 디딤돌의 구성체계 비교	16
<표7> 지학사의 구성체계 비교	18
<표8> 천재의 구성체계 비교	20
<표9> 교학사의 소재 비교	24
<표10> 금성의 소재 비교	26
<표11> 두산(김)의 소재 비교	28
<표12> 디딤돌의 소재 비교	30
<표13> 지학사의 소재 비교	32
<표14> 천재의 소재 비교	34
<표15> 교학사의 신어휘수 비교	38
<표16> 금성의 신어휘수 비교	39
<표17> 두산(김)의 신어휘수 비교	40
<표18> 디딤돌의 신어휘수 비교	41
<표19> 지학사의 신어휘수 비교	43
<표20> 천재의 신어휘수 비교	44

A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Textbook Content Systems of the
7th Curriculum and the Revised Curriculum.

Kim, Il-mu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e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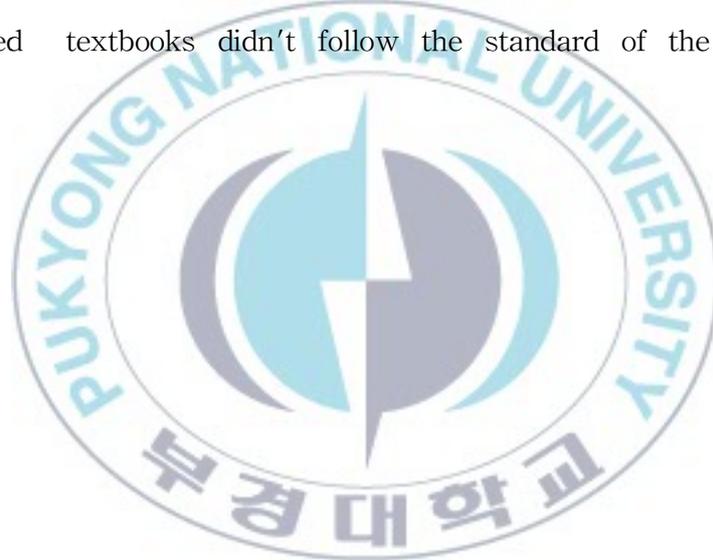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well the 7th revised curriculum is reflected in the English textbook. For this, this study compares six kinds of the revised English textbooks of the 1st middle school with the non-revised ones in terms of the content system. The main results of comparison are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 of the six revised textbooks was L-S-R-W order. The supplementary and the advanced parts in the English textbook was eliminated. The 7th curriculum suggested the supplementary and the advanced parts in the English textbook. However, this system has made many problems. So it was eliminated in the revised English textbooks. Instead of it, the revised curriculum suggests 'Activities' book for the level education.

Second, in selecting topics, the contents of the revised textbook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non-revised. The foreign cultural part was integrated and suggested in the reading part. The 7th curriculum has separated the foreign cultural part from the reading part and suggested special part for the foreign culture. However, the revised curriculum suggests the foreign culture in the reading part without the special part.

Finally, for the new vocabularies, the vocabularies were not enough or over in terms of the standard vocabulary numbers. So, the non-revised and revised textbooks didn't follow the standard of the curriculum well.



I. 서론

21세기, 세계는 이미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었다. 영어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어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에 있어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정보는 영어로 쓰여져 있다. 세계는 이제 하나의 이웃처럼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세계 여러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의사소통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익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6차, 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에서도 영어가 정규과정으로 자리를 잡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어가 매우 보편화 된 언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어 교과서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박경자·장복명(2002)은 영어교재는 추상적인 언어교육이론이나 언어정책을 실제적인 학습현장에 연결시키는 중재자라고 말하면서 영어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교과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영어 교과서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하는 영어 교육을 표방 했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영어 수업은 학생이 아닌 교사 중심의 영어 교육이었다. 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준별 수업은 학생 중심의 영어 교육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도한 교육이었다(교육부, 1997). 영어 교과서 역시 교육과정에 맞추어 심화단계와 보충단계를 두어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처음 실시된 제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수업은 많은 보완의 필요성들을 낳았다.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심화/보충문제가 수준이 맞지 않는 학교가 나오는가 하면, 평가에 있어서 학습은 심화/보충을 따로 나누어 학습 했지만 같은 평가 문제지를 가지고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평가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개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이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내용들이 변화 되었고, 또 그 변화된 내용들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정 전·후 영어 교과서를 내용체계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제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비교

7차 교육과정이 변화를 거치면서도 개정 교육과정만으로 부르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성격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일치하고, 일부만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영어 교육과정에 있어서 6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전환 되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수준별 교육이었다.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은 영어수업에 대한 생각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냈다. 개정 교육과정은 그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생겨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 3).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달라진 점을 중등과정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적인 면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수준별 교육과정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폐지가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던 보충/심화 영역이 삭제되었다. 수준별 수업에 있어서는 학교별 자율적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목표적인 면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최종 단계의 영어 교육목표만 제시되던 것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목표 아래 초등과 중등의 목표가 분리되어 제시 되었다.

셋째, 내용적인 면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로 구분했었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로 구분하고 언어재료 중 문화 항목은 소재 항목에 포함하여 제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휘의 제시에 있어 7차 교육과정에서

는 7학년(중1) 200단어 내외, 8학년(중2) 250단어 내외, 9학년(중3) 350단어 내외, 10학년(고1) 450단어 내외로 하고, 어휘수에 융통성을 두던 것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7학년(중1) 170단어 이내, 8학년(중2) 280단어 이내, 9학년(중3) 390단어 이내, 10학년(고1) 450단어 이내로 하여 어휘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표를 통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1> 제 7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제 7차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격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보충/심화 영역 제시)	-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 삭제 (보충/심화 영역 삭제, 수준별 수업의 자율적 운영 권장)
목표	- 최종단계의 영어 교육 목표만 제시	- 전체 목표 아래 초등/중등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
내용	-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로 구분 - 기본 어휘수 7학년(중1) 200단어 내외 8학년(중2) 250단어 내외 9학년(중3) 350단어 내외 10학년(고1) 450단어 내외	- 언어재료를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로 구분(문화 항목은 소재 항목에 포함하여 제시) - 기본 어휘수 7학년(중1) 170단어 이내 8학년(중2) 280단어 이내 9학년(중3) 390단어 이내 10학년(고1) 450단어 이내

2.2. 영어 교재론

2.2.1. 영어교과서의 개념 및 역할

영어 교과서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를 이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영어 교과서의 개념에 있어 배두본(1990)은 영어 교과서는 영어 교과서의 내용을 실은 통일성 있는 수업자료 뿐 아니라 여러 개의 부분으로 조직된 영어 학습 자료의 꾸러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EFL상황에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영어 교과서의 역할은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실생활이 아닌 교실이라는 인위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가 수업을 위한 활동들을 결정 할 때, 대부분 교과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역할에 있어 장복명(1995)은 상호작용 모형(Interaction Model)을 통하여 영어 교재가 교육의 전체적인 모형 속에서 하는 역할 수행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교육과정과 교사, 학습과정을 직접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둘째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실 수업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구현체이며 동시에 교사와 학습자 변인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내용과 교실수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교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념을 교육과정의 구현체이며, 상호작용적인 수업의 촉진자이자 변화의 매개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배두본(1999)은 영어 교재는 학교, 사회생활에서의 영어 학습 활동, 라디오 및 TV를 통한 영어와 접촉되는 광범위한 교재 개념과 실제 영어 교수-학습에 사용되는 언어 자료로서 영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 소재를 이해하는 협의의 개념이 있다고 하였다. 협의의 개념은 언어 입력이 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자료로서 흔히 수업에 사용되는 교

과서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영어 교과서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서는 교과서 분석이론과 관련된 학자와 이론을 살펴보겠다.

2.2.2. Skierso의 교과서 분석기준

Skierso(1991)가 제시한 분석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목표와 목적

- 교과서의 목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떠한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발전 시키려 하는가?
- 언어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어떠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나?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

② 소재

- 어떠한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제시되고, 언어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것들인가?
- 소재들이 구체적인가? 혹은 추상적인가?
- 단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 문화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편견은 없는가?
- 어떤 유형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가? (담화, 문화권의 서술, 노래, 시, 수필, 전기, 편지, 신문기사, 속담, 전설, 우화, 희곡 등)

- 교과서가 믿을 만한가? 구어 표현들이 실제회화에서 쓰이는 것인가? 문어 표현들은 실물 소재인 편지, 보고서, 뉴스나 잡지 등에서 쓰여지거나 혹은 개작된 것인가?

③ 어휘와 문법

㉠ 문법

- 얼마나 많은 문법 사항들이 어떤 순서로 선택되고 강조되는 가?
- 문법 규칙이 귀납적인가? 혹은 연역적인가?
문법 사항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
- 동사 형태 변형이 어느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가?
- 언어 항목이 의미 있는 문맥에서 소개되는가?

㉡ 어휘

-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 빈도나 주제, 혹은 의사소통 기능 등이 고려 되었나?
- 어휘의 어근과 굴절형을 다루고 있나? (복수형, 소유격, 과거시제 등)
어떤 내용에서 얼마나 많은 어휘들이 제시되었나?
- 어떤 방법으로 어휘가 정리되었나?

2.2.3. Cunningsworth의 교과서 분석 기준

Cunningsworth(1984)가 제시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언어적 내용

- 언어체계 어느 부분이 지도 되는가? (언어형태, 언어기능, 의사소통 유형)
- 언어 형태 중 어느 측면이 지도 되는가? (음운론, 문법, 어휘, 담화)
- 적절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는가?
- 어느 종류의 영어가 지도 되는가? (방언, 언어양식, 언어매체)

② 언어 항목의 선택과 등급화

- 교재가 구조적 교수요목, 기능적 교수요목 중 어느 것을 따르는가?
- 언어내용의 선택과 순서가 학생 중심적인가? 과목 중심적인가?

③ 새로운 언어 항목의 제시와 연습

- 새로운 문법 항목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시되는가?
- 새로운 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문제가 다양하고 의미 있고,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가?
- 새로운 어휘가 어떻게 제시 되는가?
- 음의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상을 통하여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영어 교재론을 통하여 영어 교과서의 의미와 분석 기준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하여 3장에서 개정 전·후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분석 모형을 제시 할 것이다.

Ⅲ. 내용체계 분석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 전·후 영어교과서를 내용체계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었던 25종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중에서 선행 연구된 6종 교과서(교학사, 금성, 두산(김), 디딤돌, 지학사, 천재)¹⁾와 같은 종류의 개정된 6종 교과서를 선택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내용체계의 종류는 단원 구성체계, 소재, 신어휘수이며 각 종류별 세부항목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김임득, 고정석, 이병춘, 김기호, 이희경, 이경만, 우동하. (2009).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교학사.

이완기, 김성연, 이석재, 이충현, 이정란, 윤지희. (2009).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금성출판사.

김성근, 송미정, 윤정미, 박용예, 문도식, 류애현, 김춘수. (2009).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두산(김).

김용진, 홍완기, 정사열, 양미라, 강윤희, 고효완, 김현수. (2009).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도서출판 디딤돌.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호, 이선정. (2009).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지학사.

1)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분석(2003) 박예선. 선행논문에서는 '중앙교육'을 포함 7종이나 현재 '중앙교육'은 없는 관계로 6종 교과서만 분석함.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서령, 김현숙. (2009).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

3.2. 분석 모형 설정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제시한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충/심화 영역의 삭제, 둘째는 문화 영역을 소재에 포함 제시, 그리고 셋째는 어휘수의 변화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세 가지 영역들이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었고, 개정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제시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 하면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영역과 관련된 구성체계, 소재, 신어휘수를 아래와 같은 분석 모형을 가지고 분석할 것이다. 분석 모형은 앞서 기술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비교를 위하여 분석모형의 질문은 선행 연구인 박예선(2003)의 분석모형의 질문을 기초로 하였다.

<표2> 교과서 분석 모형

구성체계	1.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구성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 개정전 수준별 교육을 위한 심화/보충부분의 삭제 후 수준별 교육을 위한 개정 교과서의 대안은 무엇인가?
소재	3.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소재는 어떻게 다른가?
	4. 개정전 교과서의 문화제시와 개정 교과서의 문화 제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신어휘수	5.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어휘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6.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단원별 어휘 분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위의 분석 모형은 3가지 분석 영역 하에 6가지 세부 분석 기준으로 구성되어졌다. 분석모형에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구성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개정 부분인 수준별 교육을 위한 심화/보충 영역의 삭제 후 수준별 수업의 자율적 운영을 학교별로 권장하도록 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에 따른 대안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소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문화 항목의 제시가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에서는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어휘의 제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어휘수와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어휘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이다. 또한 개정 전·후 교과서의 단원별 어휘 분포의 고른 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비교할 것이다.

IV. 내용체계 분석

4.1. 구성체계

4.1.1. 교학사의 구성체계

교학사의 구성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교학사의 구성체계 비교

개정전	학습 방법	개정후	학습 방법
Open up	학습 요점	Warm Up	단원 소개
Let's Listen	듣기 활동	Listen	듣기 활동
Word Bank	어휘 학습	Talk Together	말하기 활동
Let's Read	읽기 활동	Read and Think	읽기 활동
Let's Talk	말하기 활동	After You Read	읽기 후 활동
Let's Write	쓰기 활동	Write	쓰기 활동
Review	복습/언어형식		
I Can Do It	단원 내용 정리	Focus on Language	단원 내용 정리
Your-Own-Way -Activities	보충/심화(3단원 마다 4쪽)	Test Yourself	형성평가 실시 (3단원마다 2쪽)
부록	Self Check		

개정전 교학사는 교과서 구성체계가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언어 기능의 순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6차 교육과정의 구성체계를 따르고 있다(교육부, 1992). 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기능을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순으로 바뀌어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따라서 개정 교과서에서는 구성체계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순으로 구성 되어있다.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Word Bank'를 통해 읽기전 활동으로 어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읽기 영역이 학습 되도록 하였지

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 영역은 삭제되었고, 읽기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보고 주어진 질문에 답해보는 형태의 읽기 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교과서에서는 읽기 후 활동도 신설 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읽기 전 활동은 모든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과부터 12과까지만 제시되어있고, 읽기 중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3단원마다 이루어지는 정리학습은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4쪽 분량이었으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2쪽으로 그 분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인 정리 활동도 필요하다.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Let’s Read’와 ‘Your-Own-Way-Activities’에 심화/보충 영역을 두어 수준별 학습이 되도록 하였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 영역은 삭제가 되었다. 심화/보충 영역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책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과서를 배우는 과정에서 활동책과 연계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학사는 활동책을 보충/기본/심화의 세 단계를 두어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을 좀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4.1.2. 금성의 구성체계

금성의 구성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금성의 구성체계 비교

개정전	학습 방법	개정후	학습 방법
학습목표	단원 도입	Open Up	단원 소개
Let's Listen	듣기 활동	Figure It Out	듣기 활동
Let's Talk	말하기 활동	Speak It Out	말하기 활동
Let's Read	본문 읽기 활동	Read & Think After You Read	본문 읽기 활동 읽기 후 활동
Let's Write	Comprehension	Write It Out	작문 연습
Let's Enjoy English	노래/퍼즐	Work It Out Together	게임/조사/Project 활동
Summing Up	내용 총정리	English in Use	내용 정리
Test Yourself	형성 평가	Review	핵심내용 정리
Build Up Your English	심화학습 자료/ 동사 변화표		

금성의 구성체계는 개정 전·후 교과서 모두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개정전 교과서와는 달리 첫 단원의 도입 전에 특별히 ‘Special Program’으로 ‘Let's Go’영역을 두어 초등학교 때 배운 영어 실력을 점검하고 중학교 영어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과정의 의사소통 표현 정리, 교실 영어, 필기체 연습 등의 자료를 제시 하였다. 이 부분은 만화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보여진다.

읽기 영역에서는 개정전 교과서와는 달리 읽기 전 활동과 읽기 중 활동을 분명히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내용 이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읽기 후 활동도 한 영역을 뒀으로써, 읽기 전·중·후가 분명하게 제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금성은 다른 교과서와는 다르게 단원 소개 부분에

읽기 및 쓰기 영역의 분명한 학습목표를 기술해 놓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제시해 두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3단원마다 제시 되는 Review의 총정리 활동은 2쪽으로만 제시 되어 있어 좀더 충분한 활동 제시가 요청된다.

개정전 교과서의 보충/심화 영역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금성 역시 활동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책은 보충/기본/심화의 세 단계를 두어 학생들이 개인의 수준에 맞춰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1.3. 두산(김)의 구성체계

두산(김)의 구성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두산(김)의 구성체계 비교

개정전	학습 방법	개정후	학습 방법
warm up	학습 목표	In this lesson	단원 소개
Let's Go	학습 준비 활동	Before You Begin	학습 준비 활동
Listen and Talk	듣기/말하기	Listen and Talk	듣기/말하기
Read and Think	읽고 이해하기	Enjoy Reading	읽고 이해하기
		After You Read	읽기 후 활동
Study Points	어법 활용 연습	Grammar in Use	어법 활용 연습
Let's Write	쓰기 연습	Think and Write	쓰기 연습
Project Work	모둠과제 수행	Project Work	모둠과제 수행
On Your Own	성취도 확인	Let's Check	단원 총괄 정리
Review	종합복습(3단원마다)	형성평가	종합복습(3단원마다)
Check-up	실력점검(3단원마다)		

두산(김)의 구성체계는 개정 전·후 교과서 모두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단원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 되어 있었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단원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제시 되어 있다.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읽기 영역에서 읽기 활동만을 제시 하였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읽기 영역인 ‘Enjoy Reading’에서 읽기 전 및 읽기 중 활동이 제시 되어 있다. 또한 ‘After You Read’ 영역에서는 읽기 후 활동까지 제시 되어있어, 읽기 전·중·후 활동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보충/심화 영역의 삭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두산(김) 역시 활동책을 제시 하고 있으며, 활동책은 보충/기본/심화의 세 단계를 두어 학생들이 개인의 수준에 맞춰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1.4. 디딤돌의 구성체계

디딤돌의 구성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디딤돌의 구성체계 비교

개정 전	학습 방법	개정 후	학습 방법
Warm Up	학습 목표	Are You Ready?	단원 소개
Listen and Check	간단한 듣기	Listen Up	듣기 활동
Listen and Act	듣기 활동		
Let's Talk 1&2	기능별 대화	Speak Up	말하기 활동
Dialogue	말하기		
Work Together	과제 수행	Self-study Guide	과제 수행
Read & Think/ Read & Act	읽기 활동	Before Reading	읽기 전 활동
Write It Right	쓰기 활동	Reading	읽기 활동
Work Together2	읽기/쓰기 영역 활동	After Reading	읽기 후 활동
Language Focus	언어 형식 정리	Writing	쓰기 활동
Self-Check	진단평가 실시	Focus on Language	어휘/언어형식 정리
Your Choice	보충/심화 활동		
Life and Culture	영미문화 이해	Learning Diary	배운 내용 정리
부록	진단평가/형성평가	총괄 평가 자료	총괄문제(3단원마다)

디딤돌의 구성체계는 개정 전·후 교과서 모두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단원 도입 부분에서 학습목표가 제시 되어 있는 반면, 개정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활동에서는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읽기 영역의 제시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읽기 영역을 전·중·후 활동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개정전 교과서의 'Your Choice'영역에 있던, 보충/심화 활동은 개정 교과서에서는 삭제 되었으며, 개정전 교과서의 'Life and Culture'의 '영미문화 이해'에서 다루어지던 문화제시 영역은 개정 교과서에서는 소재 항목에 포함 제시, 읽기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보충/심화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디딤돌 역시 활동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책은 보충/기본/심화의 세 단계를 두어 학생들이 개인의 수준에 맞춰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1.5. 지학사의 구성체계

지학사의 구성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 지학사의 구성체계 비교

개정전	학습 방법	개정후	학습 방법
Guess What?	학습 목표	단원소개	단원 소개
Let's Listen	듣고 이해하기	Listening	듣고 이해하기
Listening Activities	듣기 학습 활동	Listening Activities	듣기 학습 활동
Sounds	발음/억양		
Let's Talk	말하기	Speaking	말하기
Talking Activities	말하기 활동	Speaking Activities	듣기/말하기 통합 학습 활동
Functions	의사소통 기능	Fun Time	짝/모듬 활동
Interactions	듣기/말하기 통합 학습 활동	Function File	의사소통 기능 / 발음 정리
Let's Read	읽기	Reading	읽기
Reading Activities	읽기 학습 활동	Reading Activities	읽기 학습 활동
Let's Write	쓰기 활동	Grammar File	언어 형식
Writing Activities	쓰기 학습 활동	Writing	쓰기 학습 활동
Interactions	읽기/쓰기 학습 활동	Wrap Up	통합적인 정리 학습 활동
Challenges	보충/심화 학습		
Project	모듬 활동	Project	모듬 활동

지학사의 구성체계는 개정 전·후 교과서 모두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전 교과서는 단원 소개 영역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소개만을 할 뿐 분명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전 교과서의 발음과 억양을 학습했던 영역인 ‘Sounds’는 개정 교과서에서는 삭제되고 ‘Function File’ 영역에서 의사소통 기능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언어형식 영역에 있어서, 개정전 교

과서에서는 ‘Let’s Write’에 포함하여 제시함으로, 언어형식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없었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Grammar File’영역을 두어 분명한 언어형식과 연습문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쓰기영역에서는 언어형식과 연계된 쓰기가 되어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Challenges’영역에서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보충/심화 영역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보충/심화 영역은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충/심화 영역 삭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학사 역시 활동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책은 보충/기본/심화의 세 단계를 두어 학생들이 개인의 수준에 맞춰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1.6. 천재의 구성체계

천재의 구성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 천재의 구성체계 비교

개정전	학습 방법	개정후	학습 방법
Focus On	단원 소개	Unit Focus	단원 소개
Warm Up	학습 준비 활동		
Listen and Do	듣기 전 활동	Listen and Talk: Before You Listen	듣기 전 활동
Dialogue	대화문 제시	Listen	대화글 듣기
Let's Talk	말하기	Talk	말하기
Sounds	문장 강세	Real-Life Activity	언어의 4가지 영역 통합 활동
Hello, Everyone	읽기 전 활동	Read and Do: Get Ready/Read/ Before You Go On/Over to You	읽기 전/읽기 중/ 읽기 후 활동 학습
Read and Think	읽기	Language Focus	어휘/언어 형식
Let's Write	쓰기 활동	Think and Write	글쓰기
Play and Talk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언어 형식		
Do It Yourself	성취 문제	Project	과제 수행
Can you do it?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과 언어 형식 진단	Wrap Up	게임을 통한 내용이해 점검
Make Up	보충 문제		
Extend It	심화형 문제		
Culture to Culture	한국/영미문화 차이(6단원마다)	Special Unit	영어 story 학습
Focus on Form	언어 형식 정리(3단원마다)		

천재의 구성체계는 개정 전·후 교과서 모두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단원소개 영역 외에 ‘Warm Up’ 영역을 두어 학생의 선수학습 능력을 미리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 영역은 삭제되었다. 또한 읽기 영역에서는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읽기 전 활동과 읽기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개

정 교과서에서는 읽기 전·중·후 활동으로 더 세분화 되어 제시하였고, 아울러 읽기 영역 학습 후 그에 따른 활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Make Up’과 ‘Extend it’에서 심화/보충 학습을 하도록 하였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그 영역이 삭제가 되었으며, 활동책을 통하여 수준별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책은 보충/기본/심화 세 단계를 두어 학생들이 개인의 수준에 맞춰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Culture to Culture’ 영역을 두어 외국 문화를 소개하도록 하였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 영역이 삭제되고 문화 제시를 단원의 읽기 영역을 통하여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6종 교과서의 구성체계를 살펴보았다.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언어 기능의 체계가 6차 교육과정을 따른 교과서(교학사)도 있었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6종 교과서 모두 7차 개정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다. 읽기 영역에 있어서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읽기 전·중·후 활동이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았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지학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분하여 제시 되어 있었다. 개정전 교과서의 보충/심화 항목의 삭제에 대한 대안으로 개정 교과서에서는 모두 활동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활동책의 구성체계는 각 교과서와 연계하여 수준별로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전 보충/심화 두 단계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보충/기본/심화의 세 단계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개정전 교과서에 비하여 수준별 항목을 좀더 세분화 하고 학습영역을 더 넓힌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에 있어 문제시 되었던 개정전 교과 교육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평가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평가가 어려웠던 점들이 수준별 교육의 문제로 제시 되었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시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소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성격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성격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면서 일부만 수정된 것으로서 소재 항목 역시 제 7차 교육과정의 소재 항목과 마찬가지로 Finocchiaro와 Brumfit(1983)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박예선, 2003).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소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7).

- ① Introduction and identification (소개와 신분 밝히기)
- ② The immediate classroom (인접한 교실)
- ③ The school (학교)
- ④ The family (가족)
- ⑤ The immediate community of the school and home (학교와 가정이 직접 속하는 공동체)
- ⑥ The wider community (보다 넓은 공동체)
- ⑦ Cultural heritage (문화적 유산)
- ⑧ The culture of the target country (목표 언어국의 문화)
- ⑨ Personal guidance (인적 안내)
- ⑩ Miscellaneous (기타)
- ⑪ The relation of country to the world (자신의 나라와 다른 세계와의 관계)

Finocchiaro와 Brumfit(1983)이 제시한 소재 목록은 개인적인 것에서 국제 관계의 분야까지 화제의 범위가 확대 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소재 또한 동일한 기능이 뒤따른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로 점점 깊이 소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나선형(spiral approach) 또는 순환형

(cyclical approach) 접근을 제안하였다(박예선, 2003).

소재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탐구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재 선정의 기본 원칙으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교육부, 1997).

- 학생들의 흥미, 필요, 동기, 지적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한다.
- 주제와 상황, 과업들을 고려하여 소재를 선정한다.
- 성취기준 달성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한다.
- 상호작용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한다.
- 심화학습과 발전학습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한다.

또 소재에 관하여는 제 7차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화 항목을 소재에 포함시켜 교과내용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각 교과서의 단원별 소재를 나타낸 것으로, 소재는 읽기에 해당하는 본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표의 개정 전·후란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나타낸다. 각 단원에 제시된 소재가 2개 이상 제시 되었을 경우는 중복 표기하였다.

4.2.1. 교학사의 소재 분석

교학사의 소재에 있어서 개정 전·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9> 교학사의 소재 비교

항 목	내 용	교학사	
		개정전	개정후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12	1
2	가정생활과 의식주	3,4	
3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1,2,8	1,2,2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5	생활습관, 건강, 운동	11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선용	6	6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현상	11	
8	외국인의 생활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외국의 문화 포함)	10	4,7,9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10	공중 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		3,11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9	10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	7	
14	근로, 근검 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8
15	남녀 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5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12
18	기타		5(장래희망)

(※ 숫자는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나타냄)

교학사는 개정전 교과서에서의 소재 항목은 전체 11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는 9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전 교과서가 소재를 오히려 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세부 제시 항목을 보면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다루었던 2, 5, 7, 9, 13, 16 항목은 개정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반면, 11, 14, 17 항목, 그리고 기타 항목(장래희망)은 새롭게 다루고 있어, 소재의 변화를 많이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제시에 있어 개정 교과서에서는 8의 ‘외국의 생활습관’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편중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자료에 있어서 문화 항목이 추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전 교과서는 문화 항목을 다룸에 있어 별도의 영역을 두어 외국 문화를 제시하고 있음에 비해,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문화 항목을 별도 제시하지 않고 소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교학사는 개정 전 교과서에 있어 문화 제시는 ‘word bank’와 ‘bonus’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별도의 제시를 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4과(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버이날 행사), 7과(영국의 생활과 문화), 9과(추석과 추수감사절)에서 본문내용 속에 문화의 제시를 다루고 있다.



4.2.2. 금성의 소재 분석

금성의 소재의 소재에 있어 개정 전·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10> 금성의 소재 비교

항 목	내 용	금성	
		개정전	개정후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과 의식주		
3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1,2	1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3,4,11	
5	생활습관, 건강, 운동	9	10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선용		2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현상		3
8	외국인의 생활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외국의 문화 포함)		4,5,6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8	7
10	공중 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12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5,6,12	8,11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7	9
14	근로, 근검 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5	남녀 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18	기타		

(※ 숫자는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나타냄)

금성은 개정전 교과서에서의 소재 항목은 전체 7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는 9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 교과서가 개정전 교과서에 비해 소재를 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제

시 항목을 보면 개정전 교과서에서 3개 단원에서 다루었던 ‘주변의 생활과 대인 관계’ 항목을 개정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개정전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6, 7, 8 항목을 개정 교과서에서는 새롭게 다루고 있어, 소재의 다양한 제시를 시도 했다.

문화제시에 있어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Take A Break’ 영역에서 우리말로 간단히 문화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 교과서에서는 4과(우리나라와 베트남, 미국, 태국의 어버이날 문화차이), 5과(중국의 전통놀이-Tangrams)와 6과(우리나라와 독일, 로마, 중동의 식사에절 문화 차이)에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고, 7과에서는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제시했다.



4.2.3. 두산(김)의 소재 분석

두산(김)의 소재에 있어 개정 전·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11> 두산(김)의 소재 비교

항 목	내 용	두산(김)	
		개정전	개정후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1
2	가정생활과 의식주	5	
3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3	3,12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1,4	
5	생활습관, 건강, 운동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선용	8,9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현상	2	4
8	외국인의 생활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외국의 문화 포함)	6	2,6,8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7
10	공중 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5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7	
14	근로, 근검 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1	
15	남녀 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18	기타		9(장래희망) 11(세계최고 기록)

(※ 숫자는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나타냄)

두산(김)은 개정 전 교과서에서의 소재 항목은 전체 10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는 8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 전 교과서가 소재

를 오히려 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제시 항목을 보면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다루었던 소재 중 3, 7, 8, 12 항목만을 개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그 외는 모두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소재의 새로운 제시를 보이고 있다.

문화 제시에 있어서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How to make brownies’와 ‘lesson upgrade’를 통해 문화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 교과서에서는 2과(여러 나라의 다양한 교통수단 문화 차이), 6과(여행을 통한 다른 문화 이해-그리스), 8과(터키의 전래 이야기를 통한 문화 이해)를 통해 외국의 문화를 제시하였고, 7과(우리 전통문화 소개)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4.2.4. 디딤돌의 소재 분석

디딤돌의 소재 제시에 있어 개정 전·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12> 디딤돌의 소재 분석 비교

항 목	내 용	디딤돌	
		개정전	개정후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4,7	1,8
2	가정생활과 의식주	6,9	9,10,12
3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1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3	4
5	생활습관, 건강, 운동	2	7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선용	5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현상		
8	외국인의 생활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외국의 문화 포함)		6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5
10	공중 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1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3,11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4	근로, 근검 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5	남녀 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0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18	기타		

(※ 숫자는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나타냄)

디딤돌은 개정전 교과서에서의 소재 항목은 전체 8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개정 교과서는 7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전 교과서가 개정 교과서에 비해 좀더 다양하게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 제시 항목을 보

면 개정전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3, 6, 11, 16 항목은 개정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반면, 8, 9, 12 항목을 새롭게 다루고 있어, 소재의 변화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제시에 있어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Life and Culture’에서 만화 형식을 통해 문화의 제시를 보여주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6과(Nuri’s Summer Trip)를 통해 부산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문화 비교)를 통해 외국의 문화를 제시하였고, 5과(B-boy dance와 탈춤 비교)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4.2.5. 지학사의 소재 분석

지학사의 소재에 있어 개정 전·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13> 지학사의 소재 비교

항 목	내 용	지학사	
		개정전	개정후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1,4
2	가정생활과 의식주	2	3
3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1,3	7,9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10	5
5	생활습관, 건강, 운동	12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선용	5,7,8	6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현상	6	
8	외국인의 생활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외국의 문화 포함)	4	2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10	공중 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1	8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1
14	근로, 근검 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9	
15	남녀 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18	기타		

(※ 숫자는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나타냄)

지학사는 개정 전 교과서에서의 소재 항목은 전체 9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는 10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 교과서가 개정 전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5, 7, 14 항목은 개정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반면, 1, 9, 11, 13 항목을 새롭게 다루고 있어, 소재의 변화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제시에 있어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notes’, ‘language and culture’부분을 통해 두 문화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하는 ‘문화요약(culture capsule)’식 방법으로 제시하였다(박예선, 2003: 40).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과(타문화-호주와 한국의 학교생활)에서 외국 문화의 제시가 있었고, 10과(음악-판소리)에서는 우리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4.2.6. 천재의 소재 분석

천재의 소재에 있어서 개정 전·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14> 천재의 소재 비교

항 목	내 용	천재	
		개정전	개정후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7	1
2	가정생활과 의식주	8	3
3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1	2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5	생활습관, 건강, 운동	3,4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선용	11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현상	2	4
8	외국인의 생활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외국의 문화 포함)	8	5,9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8
10	공중 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5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7,10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9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4	근로, 근검 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5	남녀 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6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18	기타		6(장래희망)

(※ 숫자는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나타냄)

천재는 개정전 교과서에서의 소재 항목은 전체 12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는 9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전 교과서가 소재를 오히려 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세부 제시 항목을 보면 개정전 교과서

에서 다루었던 5, 6, 10, 12, 16 항목은 개정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고, 새로운 항목은 ‘기타’의 ‘장래 희망’만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제시에 있어서는 6종의 다른 교과서에 비해 적은 시도를 보였다.

문화제시에 있어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culture to culture’에서 문화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5과(생일파티 문화-피나타(라틴아메리카)), 9과(Vancouver for Teens-십대를 위한 캐나다 밴쿠버 문화소개)를 통해 외국 문화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8과(Culture in our Pockets-우리나라 지폐의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상에서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소재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문화제시에 있어 차이를 살펴보았다. 소재는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소재 항목의 수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재 선택에 있어서는 개정전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일부 항목들이 개정 교과서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고,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 개정전 교과서에 비해 소재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 제시에 있어서는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별도의 영역을 두어 문화차이를 소개하고 있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소재 속에 문화 제시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어, 문화 제시에 해당하는 항목이 반드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개정 교과서들이 교육과정을 잘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3. 신어휘수

어휘의 습득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Wilkins(1976)는 문법이 없이는 약간의 의미는 전달되지만, 어휘가 없이는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어휘력 신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어휘를 배운다는 것은 일정한 양의 단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휘를 맥락에서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 쓰임새와 특성까지도 아는 것을 포함한다. 의사소통을 할 때, 자연스런 표현을 위해서 적절한 어휘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기본 어휘가 선정된 것은 1973년에 공포된 제 3차 교육과정에서 부터이다. 이때의 기본어휘가 수정 보완되어 고시된 것이 제 6차 교육과정이었으며, 제 7차 교육과정에 이어 지금의 개정 교육과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박예선, 2003).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중학교 1학년, 즉 7(7-a, 7-b)단계에서는 200낱말 내외, 중학교 2학년, 즉 8(8-a, 8-b)단계에서는 250 낱말 내외, 중학교 3학년, 즉 9(9-a, 9-b)단계에서는 350 낱말 내외를 이수하고, 고등학교 1학년, 즉 10(10-a, 10-b)단계에서는 450 낱말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총 1250 낱말 내외로 이 중 중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는 10단계의 450낱말을 제외한 800 낱말 내외이다(교육부, 199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즉 7학년에서는 170 낱말 이내, 중학교 2학년, 즉 8학년에서는 280 낱말 이내, 중학교 3학년, 즉 9학년에서는 390 낱말 이내, 고등학교 1학년, 즉 10학년에서는 450 낱말 이내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총 어휘는 1290 낱말이고, 이 중 중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는 10학년 450 낱말을 제

외하면 840 낱말 이내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개정전 교육과정에서는 ‘내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휘 사용의 용통을 둔 것에 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휘 사용의 최대치를 명시하고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새로운 어휘의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된 개정전 교과서의 어휘 분석을 토대로 개정 교과서의 어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개정 교과서의 신어휘는 영어 교과서 활동책 부록 부분에 수록되어 있으며, 초등 교과서의 어휘가 별도 표시되어 함께 수록되어 있으나, 초등 어휘를 제외한 중등 신출 어휘만을 계수하여 분석하였다.



4.3.1. 교학사의 신어휘수 분석

교학사의 개정 전·후의 신어휘수는 다음과 같다.

<표15> 교학사의 신어휘수 분석 비교

단원	교학사	
	개정전	개정후
1	22	17
2	22	17
3	12	12
4	12	16
5	9	14
6	16	14
7	13	14
8	18	18
9	7	14
10	14	15
11	14	13
12	15	14
계	174	178

(개정전 어휘 기준: 200낱말 내외/개정후 어휘기준: 170낱말 이내)

교학사는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174개의 낱말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어휘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정 교과서에서는 178개로 기준을 오히려 초과하고 있다. 각 단원별 어휘 분포는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최대 어휘 제시는 22개, 최저 어휘 제시는 7개로 15개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최대 어휘 제시는 18개, 최저 어휘 제시는 7개로 11개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 교과서가 개정전 교과서에 비해 고른 분포의 어휘수를 보이고 있다. 단원별 어휘수가 너무 많으면 해당 단원을 학습시 학습 부담이 크며, 반면 어휘수가 너무 적으면 학습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고른 어휘수의 분포는 꼭 필요하다.

4.3.2. 금성의 신어휘수 분석

금성의 개정 전·후의 신어휘수는 다음과 같다.

<표16> 금성의 신어휘수 분석 비교

단원	금성	
	개정 전	개정 후
교과도입부		23
1	31	19
2	27	19
3	27	14
4	24	12
5	31	16
6	30	11
7	30	14
8	30	21
9	26	20
10	28	8
11	27	9
12	32	20
계	343	206

(* 개정전 어휘 기준: 200낱말 내외/개정후 어휘기준: 170낱말 이내)

금성은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343개의 낱말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개정 교과서에 있어서도 금성은 206개의 상당히 초과된 어휘수를 보이고 있다. 각 단원별 어휘 분포는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최대 어휘 제시는 32개이고, 최소 어휘 제시는 24개로 편차는 8개를 보이고 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교과 도입부를 제외하더라도²⁾ 최대 어휘 제시는 21개이고, 최저 어휘 제시는 8개로 편차는 13개를 보이고 있어, 개정전 교과서가 개정 교과서에 비해 오히려 고른 어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정전 교과서는 편차는 적지만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어휘수 보다 지나치

2) 제일 많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교과 도입부이지만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각 단원이므로 개정전 교과서와 동일한 조건의 비교를 위해 각 단원을 기준으로 함.

게 많은 수의 새로운 어휘를 소개하고 있어, 어휘를 학습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교과서도 어휘 제시가 고르지 못하면서, 전체 어휘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어휘 학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어휘 제시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4.3.3. 두산(김)의 신어휘수 분석

두산(김)의 개정 전·후의 신어휘수는 다음과 같다.

<표17> 두산(김)의 신어휘수 분석 비교

단원	두산(김)	
	개정 전	개정 후
1	15	26
2	22	8
3	13	21
4	17	8
5	24	10
6	21	15
7	21	7
8	19	10
9	21	14
10	21	14
11	20	7
12	19	12
계	247	152

(* 개정 전 어휘 기준: 200낱말 내외/개정 후 어휘 기준: 170낱말 이내)

두산(김)은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247개의 낱말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에 초과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교과서는 152개로 기준 어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 단원별 어휘 분포는 개정 전 교과서의 최대 어휘 제시는 24개이고, 최저 어휘 제시는 13개로 11개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개정 교과

서에서는 최대 어휘 제시는 26개이고, 최저 어휘 제시는 7개로 무려 19개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전 교과서가 개정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개정전 교과서는 개정 교과서에 비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단위별 어휘 학습량이 많으므로 어휘 학습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교과서의 어휘수는 152개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매우 고르지 못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차후 개선이 요구 된다.

4.3.4. 디딤돌의 신어휘수 분석

디딤돌의 개정 전·후의 신어휘수는 다음과 같다.

<표18> 디딤돌의 신어휘수 분석 비교

단원	디딤돌	
	개정전	개정후
1	20	16
2	17	18
3	18	17
4	18	20
5	18	12
6	20	12
7	18	19
8	16	13
9	20	10
10	21	13
11	21	18
12		15
계	207	183

(* 개정전 어휘 기준: 200낱말 내외/개정후 어휘기준: 170낱말 이내)

디딤들은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207개의 낱말을 제시하고 있어 대체로 기준에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183개로 어휘 기준을 초과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단원별 어휘 분포는 개정전 교과서는 최대 어휘 제시는 21개이고, 최저 제시는 16개로 5개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최대 어휘 제시는 20개이고, 최저 어휘 제시는 10개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전 교과서가 개정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교과서의 어휘는 개정전 교과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르지 못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6종 교과서 중 다른 교과서들의 최대 및 최소 어휘 제시의 편차가 10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다른 교과서들과 비교 했을 때는 고른 어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3.5. 지학사의 신어휘수 분석

지학사의 개정 전·후의 신어휘수는 다음과 같다.

<표19>지학사의 신어휘수 분석 비교

단원	지학사	
	개정전	개정후
1	20	19
2	10	17
3	22	7
4	16	10
5	26	9
6	22	9
7	16	14
8	11	17
9	25	14
10	31	9
11	38	13
12	35	19
계	266	157

(* 개정전 어휘 기준: 200낱말 내외/개정후 어휘기준: 170낱말 이내)

지학사는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266개의 낱말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하여 제시되었다. 반면 개정 교과서는 157개로 기준에 오히려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 단원별 어휘 분포에 있어서도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최대 제시 어휘수는 38개이고 최소 제시 어휘수는 10개로 편차는 28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6종 교과서 중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최대 제시 어휘수는 19개이고, 최소 제시 어휘 수는 7개로 편차는 12개를 보이고 있어, 개정전 교과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6종 교과서 중 제시 어휘수의 편차가 5개를 보이는 교과서(교

학사 개정 교과서, 디딤돌 개정전 교과서)도 있는 것을 볼 때,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 모두 매우 고르지 못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4.3.6. 천재의 신어휘수 분석

천재의 개정 전·후의 신어휘수는 다음과 같다.

<표20> 천재의 신어휘수 분석 비교

단원	천재	
	개정전	개정후
1	17	20
2	18	19
3	18	19
4	20	16
5	14	24
6	20	19
7	17	15
8	19	14
9	12	10
10	15	28
11	16	5(S1) ³⁾
12	19	4(S2)
계	209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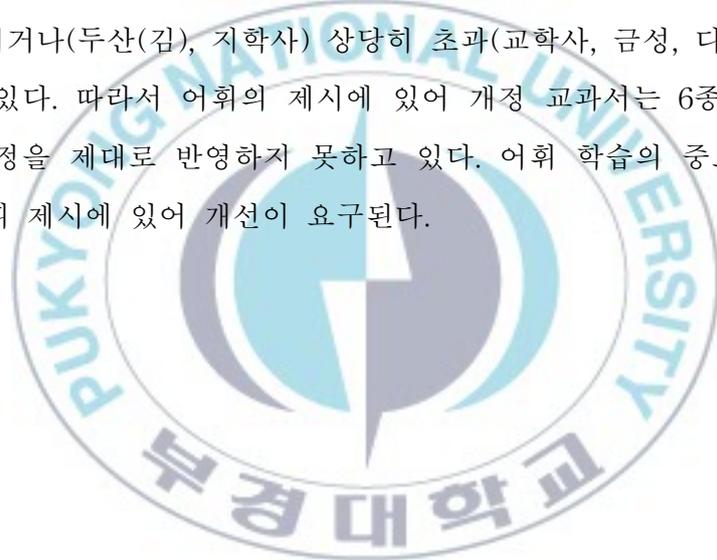
(* 개정전 어휘 기준: 200낱말 내외/개정후 어휘기준: 170낱말 이내)

천재는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209개의 낱말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에 적합하게 제시 되어 있다. 개정 교과서는 193개의 낱말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단원별 어휘 분포는 개정전 교과서는 최대 어휘 제시는 20개이고, 최저 어휘 제시는 12개로 8개의 편차를 보이고 있

3) S1: Special unit 1, S2: Special unit 2

다. 개정 교과서는 최대 어휘 제시는 28개이고, 최저 어휘 제시는 10개⁴⁾로 18개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전 교과서가 개정 교과서 보다 오히려 높은 어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6종 교과서의 개정 전·후의 신어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신어휘수에 있어 개정전 교과서들은 디딤돌과 천재를 제외하고 대체로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거나(교학사) 상당히 초과(금성, 두산(김), 지학사)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6종 교과서 모두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두산(김), 지학사) 상당히 초과(교학사, 금성, 디딤돌, 천재)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어휘의 제시에 있어 개정 교과서는 6종 교과서 모두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휘 제시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4) 여기서는 각 단원별 어휘 제시 수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전 교과서와 동일한 조건의 비교를 위해 Special unit 1,2는 단원 최소 제시어 대상으로 하지 않음.

V. 결론

이상에서 6종의 교과서를 내용체계의 관점에서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개정 전·후 중 1학년 교과서를 비교 분석 해 보았다. 분석했던 각 영역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체계에 있어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 기능 구성체계, 즉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구성을 따르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6종 교과서 모두 구성체계를 잘 따르고 있었다. 읽기 영역의 읽기 전·중·후 활동은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학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시 되어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의 보충/심화 영역의 삭제에 대한 대안으로 개정 교과서에서는 활동책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의 내용을 보충/기본/심화의 세단계로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재는 개정전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를 비교 했을 때, 소재 항목의 수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재 선택에 있어서는 개정전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일부 항목들이 개정 교과서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고,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 개정전 교과서에 비해 소재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제시에 있어 개정전 교과서는 별도의 영역을 통하여 제시되었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소재 속에 포함 제시되어 개정전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문화와 관련된 소재 항목이 많았다. 이것은 개정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셋째, 신어휘수에 있어 개정전 교과서들은 디딤돌과 천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교학사, 금성, 두산(김))들은 어휘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었고, 개정 교과서에서는 6종 교과서 모두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거나 (두산(김), 지학사) 상당히 초과(교학사, 금성, 디딤돌, 천재)하여 제시되고 있어, 어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개정 전 교과서에 비해 개정 교과서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문제로 남아 있는 수준별 학습에 대한 대안들은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2). 「외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외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박경자·장복명. (2002). 「영어 교재론」. 서울: 박영사.
- 박예선. (2003).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두분. (1990). 「영어 교육학」. 서울: 한신 문화사.
- 배두분. (1999). 「영어 교재론 개관」. 서울: 한국 문화사.
- 장복명. (1995).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6차 교육과정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unningworth, A. (1984). *Evaluating and Selecting EFL Teaching Materials*. London: Meinemann Educational Books.
- Finocchiaro, M. & Brumfit, C. (1983). *The Functional-Na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kierso, A. (1991). Textbook Selection and Evaluation.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d ed.* Edited by M. Celce-Murcia. New York: Newbury House/HarperCollins.
- Wilkins, D. A. (1976). *National Syllabus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